

聖句

누가든지 저를 믿는자는
부활을 향하지 아니
하리라 구원자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자는 구원
을 얻리라
63.11.28
10.11.13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 25 2623 番
編集人 吳 允 台
發行 人 吳 允 台
主 筆 田 榮 澤

社說
夏期修養會에 바람

여름마다 교회에서나 청년
회에서는 연중행사로서 수양회
를 개최한다. 금년에는 특히
제일 총회 청년국과 면청
연합회 공동 주최로 하기수
양회를 오는 八월十七일부터
二十일까지 비파호변 Y.M.C.A
점무에서 열리게 되것은 씩
적절한 처사요 매우 반가운
일이다.

오늘날 우리가 부딪치는
시대의 물결은 나날이 변하
고 점점 급진해가고로 우
리 젊은이들이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에 매우 힘을 지
켜야 한다. 따라서 진실한 신앙

政治會議는 十月上旬
韓美安保條約假調印

서울로오는 정보에 의하면
이승만 한국대통령과 달라스美
國務長官의 회담에서 政治會議
開封時期에 대하여 오는十月一
日로 十五日까지 사흘로 의정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王萬氏는 政
治會議의 첫議題로 韓美問題

休戰후 三개월이내에 열릴
政治會議의 가장 중요한 사
이 韓國의 統一問題인것은 다
시 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美
至兩陣營의 對立이 解消되지
않는 限 이問題의 平和的解決은
어려우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問題는 國連
과 共產兩陣營에서 나오게된
軍事休戰委員會와 國連 共產共
同觀察團이 休戰과 非武装地帶
의 監督을 하게되었는데 少數
의 委員으로 二百五十키로나
되는 軍事境界線을 警戒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오 委員長位
는 共同組織인고로 粉爭의 다음
調停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休戰後에 올 三大問題
政治會議의 課題

다음은補交한인대 이것은 休
戰을 二年이나 남아 풀게한
사건인데 이미釋放한二萬七千의
捕虜도 다시 문제가 될것이요
協定에는 포로는 全部 中立國
送還委員會에 넘기게 되었는데
남은 포로에게 아무리 祖國으로
돌아가라고教育을 한다해도 그
리 쉽게될수는 없을것이오 三
개월이 지나면 政治會議로 넘
어갈터인데 그 時期는 마침
李大統領이 말한바 三개월期限
付의休戰이 끝날 때요 政治
會議도 三개월이 지난 때이니
明年一月쯤은 韓國에 다시危機
가 오리라고觀測한다.
첫째는外軍撤退問題가 政治會

한정인 같은 젊은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것도 즐거운
일이어는 하물며 같은 번외
와 고충을 떨어놓고 서로
토의하고 그리고 더구나 아
름답고 고요한 자연의 품속
에서 명상과 기도를 힘쓰는
가운데 새로운 광명과 계시
를 받을수 있다면 이에서
더 귀한 일이 없을것이다.
이제 상기(上記) 수양회나
그밖에 무릇 수양회에 바라
는것을 피력하건대 이것을
다만 한 연중행사로서 더구나
여름철 한때의 소일거리나
행락으로 생각하여 몇날을
보낼것이 아니라 조국과 민
족이 당한 긴박한 처지도

世界傳道

八月九

二十세기 傳道政勢 第六次

열두에 두각 자기 일
생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지
을 중대 관두에 선것을 명
심하여 크게 거두는 바가
있어야 할것이다.

四

十八세기 영국이 부패와 혼
난에 빠졌을 때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웨슬레를 중심으로
몇몇인이 조직한 「윌리클립」
의 운동이 영국을 피흘리는
혁명에서 구한것은 너무나
유명한 일이다 최근 미국에
서 돌아온 이들의 말을 들으
면 지금은 실업계나 스포츠
나 영화방면의 청년들의 중
심으로 신앙부흥 생활개변의
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
다 바라건대 금년 수양회에

이 두계급을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요 이 대중노동계급에 대하여는 전연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그들은 여전히 노동자 농민의 상정를 사용하며 또한 거

共産主義는 勞働者

農民들의 벗인가? (1)

제임스.이.피셔어 博士

가해관하여 田畠은 있으므로서 수많은 사려없는 사정들은 공산당이 참으로 세계의 노동자 농민을 위한 운동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을 위하여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 노동자 농민들은 공산당에 의하여 그들의 세계 정복에 대한 계획을 위하여

무기와 양식과 대포를 생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사용되고 있다. 세계의 노동자 농민들이 이 사실을 하루바삐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들에게나 또는 온 세계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공산당은 온 세계에

편한다. 그들의 선전은 항상 국민으로 하여금 계급을 의식하도록 하여 소위 계급과 계급간의 분쟁을 선동하려는 데 있다. 그들은 또한 정부와 경찰 제도를 소위 자본가와 소유자 및 경영자 계급을 옹호한다는 구실을 삼고 있다.

一世紀前에 갈. 맥스가 그의 경제학에서 자본과 공산당 선전 등등을 지적하였을 때에는 그 때에는 당시 다수의 계급자들이 있었으며 또는 노동자 농민들은 정부나 혹은 소

유자 계급에 의하여 압박을 받

었다. 후진국가에서는 아직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오늘날 어떠한 계급구분이나 차별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영국, 볼셰이, 스웨덴,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벨기에, 스위스

한자리에 앉아서 개최하였는데 역사 이래에 최유한 열화축박이 앞으로 계속하는 이대회를

에 넘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동대회는 일본외무성과 문부성에서도 특별히 협력하기로 되었다. 八月十四日 後樂園大廣場에서 열리는 특별대집회와 그전에 시행될 대회 행진을 열조경호하기 위하여 동경시청에서는 특별오위대를 파견하고 경치청 음악대까지 참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日成況裏에開會

世界傳道會議는 예정대로 지난

모인 기회에 파출는 청년이

서로 황금을 터쳐놓고 이야

기하는 동안에 더구나 엄숙

한 자인속에서 한밤을 지내

는 동안에 위에서 속사여지

는 음성을 들면서 혹은 회

심의 경현을 가지고 혹은

현신의 결심을 얻어서 생활

의 일대전기 (大轉機) 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금년의 수양회가

현재의 시대 조류에서 승리

의 거름을 얻게하는 동력을

얻게할뿐 아니라 모이는 각

개인과 우리교회와 아울러

우리 민족 전체에 크게 불라

스되는바가 있고 역사적으로

기뻐할만한 모범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道會議

日成況裏에開會

世界傳道會議는 예정대로 지난

모인 기회에 파출는 청년이

서로 황금을 터쳐놓고 이야

기하는 동안에 더구나 엄숙

한 자인속에서 한밤을 지내

는 동안에 위에서 속사여지

는 음성을 들면서 혹은 회

심의 경현을 가지고 혹은

현신의 결심을 얻어서 생활

의 일대전기 (大轉機) 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금년의 수양회가

현재의 시대 조류에서 승리

의 거름을 얻게하는 동력을

얻게할뿐 아니라 모이는 각

개인과 우리교회와 아울러

우리 민족 전체에 크게 불라

스되는바가 있고 역사적으로

기뻐할만한 모범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韓國戰線에 피곳

上) 서울 거리에서 떠돌며 살아가던 고아 200명을 수호한 YMCA 소년촌 건설에 노력하신 玄東完총무가 미군 8군단 5년대 전차부대에서 그 부대 전사가 기념으로 소년촌 건립자금 180불을 기부하여 동부대대표 웬델 노즐 중좌에게 받는 광경

(下) 소년촌 어린이대표들이 전차부대 장교들과 인사하는 광경



人權을無視한強制勞働

蘇連陣營을非難

주네-부레노가 전하는바에 의하면 국민권, 노동권들은 최근 세계 인권, 노동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속에 소련과 그 위성국인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는 정치적 공산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을 무시하고 인민들을 강제노동에 몰아넣고 있다. 폴란드와 헝가리, 남아프리카, 말라야 등에는 정치적인 목적에 강제노동을 인정한다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실제화에는 이르지 않은 모양이다

한자리에 앉아서 개최하였는데 역사 이래에 최유한 열화축박이 앞으로 계속하는 이대회를

에 넘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동대회는 일본외무성과 문부성에서도 특별히 협력하기로 되었다. 八月十四日 後樂園大廣場에서 열리는 특별대집회와 그전에 시행될 대회 행진을 열조경호하기 위하여 동경시청에서는 특별오위대를 파견하고 경치청 음악대까지 참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人事

○李 正氏(中央日報社長) 지난七月二十九日 하네다空港着來日

○金在和氏(京都民團長)歸國中이다가 지난七月二十九日來日

○鄭長老(眞生會 理事長)一渡日中이다가 지난八月一日歸國

○姜元龍氏(韓國YMCA青年部長)八月四日 카타다港航路中來日

○李大傳氏(在日YMCA理事長) 지난七月三十日歸國



○우리가 아무리 아무런 고난도 겪은 바 없으나

아직 평화의 서풍은 보이지 않고 저三八선에는 비가 들

지 바람이 불지 모르는 알은

(啼聲)이 떠돌고 있다.

○후천이 조인된 날 아이들은 하임대통령이 즉시 상하 양원

에 특별교서를 보내서 항일한

한국을 부흥하기 위하여 금후

유개를 통탄에 二억불 원조를

요청한바 곧 가결되었고 이

二억불을 포함하여 앞으로 四

五년간에 十七억불의 원조비를

지출할 것이라고 엘레스장은

언명하였다. 또 그리고 엘레스

장관은 지난 二일에 특히 한

미방위 협정문제를 비롯하여 후

후의 여러가지 한미간의 중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친히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러

한 모든 처사를 보아서 미국

측에서 상당히 책임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남은것은 정치회의와 그보다 미국과 유엔이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데 있다. 우리 한국사람은 말할것

도 없이 평화적통일을 바라거

니와 미국과 유엔과 온 세계

에서 바라는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고 다시 피를 흘리는

일이 없기는 오직 하나님의

성리에 있거니와 엘레스장관부

터 친히 한국에 와서 보고

한국을 좀더 이해하고 유엔및

나라도 한국을 알아서 좀더

강한 태도를 취하기에 있다.

世界傳道會議

韓國代表는未參

在日韓國教會大傳道計劃

이번 八月九日(日) 당지에서 모이는 세계 전도대회에 한국에서 대표적인 목사 약十五인이 참석하리라는 것은 이미 보도한바와 같이 여권관계로 불행히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일본에 있는 한국교회측에서는 동대회 전도단과 손을 잡아 대전도집회를 열기로 원바 지난 七月三十一日(토요일) 오전 十時부터 동경교회에서 관동지방교회자와 이번 집회의 연합 교섭위원인 「밀스」씨와 부인선교사 「버그만」씨와 연석회의를 하였는데 참석한 교역자는 오윤태, 박명준, 김택성, 성경만목사와 배기환, 아인하전도사요 복음선문사측으로 전영택목사 유석준장로가 참석하였다. 토의한 내용을 들으면 한국

에서 만일 대표가 못오는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교역자가 한국대표를 겸하여 출석하기로 하고 그중에 한 사람이 대표

하여 대회에 보고를 하기로 하였고 관동지방에서는 대회 전도팀을 물물 초빙하여 각교회 각지구를 따라서 집회를 열기로 하였는데 전도비라를 한 국말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측에서 한국사람이 많이 사는 부락을 호별방문하여 집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취질을 시키기로 하였다고 한다.

岡崎地方福音傳道盛況

民團幹部들二十八人入信

名古屋교회에서는 신도배가전도의 일환으로 인근도시 岡崎 전도소를 중심으로 지난 二七日 부터 三日간 전도 집회를 하였다. 강사에 大垣교회 박명준목사를 모시고 거류민단 사무실 二층강당에서 전도집회를 하였는데 민단 김의장, 김단장, 김해진씨등을 비롯하여 二十八명이 새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다.

景鴻基博士論文通過

囑望 많은 靑年學徒



(景鴻基博士)

三河島교회 경홍기(景鴻基)씨는 금번에 東京대학에서의 학박사(醫學博士)의 학위를

받았다. 경박사는 황해도 출신으로 만주奉天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해방후 國立서울大學 조교수로 시무하다가 수년전에 東京대학 생리학교실에 들어가 연구하던 바 금번에 그공을 이루었다. 금번에 제출한 논문은 다음 의 세가지였다. 1. 한국인의 신체 발육에 관

한 연구

- 1 迷走신경단일자극의 호흡호흡과와 호흡중추의 운동적 흥분에 대하여
 - 2 迷走신경의 영기적 類數자극에 의한 호흡자극과 정지에 대하여
 - 3 迷走신경의 영기적 類數자극에 의한 호흡자극과 정지에 대하여
- 씨는 결혼하신 청담(三十四才) 학도로서 현재 재일한국 Y.M.C.A. 이사회(理事會)에서 서기직으로 숨은 봉사를 할뿐만 아니라 三河島교회에서 집사로 시무하시면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몸서 생활화하고 있는 재건국가의 호수시다

無名草

T. T 作

여름 들
우거진 밑에
금년에도 이름 모를 꽃이
자주 꽃이 피었다
친구여
세상에는
꼭 하나
이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느냐
돈을 생각지 않고
인름도 지위도 모르고
잠을이 적은 열을
수적수적하면서
그 한평생을 살아가는이의
깊은 성의와 사랑이니

宗教彈壓緩

한가리-정부는 최근에 불라우리만큼 종교정책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소련 정부가 서구라파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하나로 관측 된다. 교회에 대한 한가리의 신정책의 실례로써 자넌에 투옥한 민선(민선)이 주가경(舊敎)과 요셉·크레-스대주교를 관대히 취급할것을 비롯하여 종교교육에 편의를 줄것, 종교의식에 간섭을 않을것이 특기할 일이다.

이 지령에 따라 민선(민선)이 주가경은 수주일 전에 감옥에서 어떤 별장에 옮겨지고 친절한 간호를 받고있으며 주가경의 비서였던 안드레-스 자갈-신부

大韓婦人會

新會長李



(李淑子氏)

지난七月三十日(日)에 在大韓婦人會總事務所 民團總務部에서 개최하고 역원을 선거한 결과 회장에 李淑子氏 李會長에 金正全氏가 당선되었는데 新任會長은 과거에 本國에서 교육계에 많은 공헌을하고 부인운동에도 많은 활동을 한분으로 동회의 장래발전과 사업에 씨의는부신 활약이 기대되는바 다시 지난 八月六日(日) 오후 二시에 曠 시 民團 總務部에서 부인회 동경본부지부장 회가 열렸는데 새회장의 큰 포부와 굳은 결의를 보이는 열렬한 취임사가 있었고 민團총과 동경간부와 본사 주필의 축하가 있었다 각부서 책임자는 회장 자신이 자금 교섭을인대적소적재의 역원이 결정되는대로 부인회 동경본부는 앞으로 민단과 협력하여 대활약을 보

는 감옥에서 석방되어 민본디
추기경과 장시간의 회담을
하였다는데 그 외에도 수명
의 신부들이 민본디를 위로
하느니라 하였다 한다。

한가리정부의 교회에 대한
이같은 신정책은 최근에 공산
당 극렬분자였던 마취쓰·라코
시가 물러나고 임무네·나위가
수상이 된후에 실시된 것이다.
신수상은 국회에서 총신정책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淑子氏被選

일것을 일반은 기대한다.

은 신부 두사람은 七月부터
불란서의 바덴헨느(공산주의가
강한 지방)에서 선교하기 시
작하였다 이 지방에서는 교회
에 가는 사람을 미천사람 같
이 여기리 만큼 되어서 있다
이 두 신부는 쾰트의 쾰니

은 신부 두사람은 七月부터
불란서의 바덴헨느(공산주의가
강한 지방)에서 선교하기 시
작하였다 이 지방에서는 교회
에 가는 사람을 미천사람 같
이 여기리 만큼 되어서 있다
이 두 신부는 쾰트의 쾰니

南亞佛利加教會

뉴욕에서 500가 보도한바
에 의하면 남아리카의 나탈
1州에서 선포하는 테니쓰하
레-신부는 七月호 추비리-誌
에 그리스도교는 남아리카에
많은 세력이 아니나 민중차별
문제 해결에 공헌을 하였다고
요지 다음과 같은 논문을 발
표 하였다.

주민(百人住民)들에게 반성

하여진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교의 원리를 가르치는 선
포에 힘쓰고 있다. 아푸리카

배지말것이다.

하면서 암화정책의 일단을 설했었다. 따라서 개화국의 지도자로서도 국내정세를 판단하는 전방이 상당수위에 생기게 되었다.

또 한가리 - 교육청(敎育省)은 조선지령에 따라 모든 소학교를 생도학부형이 자기 자에게 충성을 기울여 시키기 위한 수속도 완수되고 그 결과 있었다. 따라서 교육지도자는 충성을 기울여 양심론의 편을 잡고 학도정예에게는 충성을 기울여 개인적 소출을 하라고 명령하였다.

共產總本營의指令?

教會緩和政策一覽

조선이 한가리정부에 지령을

教會緩和政策一覽

조선이
한가리정부에
지령했

골라쓰 신학교서 함께온 수명의
학생들과 함께 공산주의자들
의 세력지대에 열렬한 신교를
시작하리라 한다 이곳에는 공
산주의자들 반대로 신앙을 잃
은 사람도 있거니와 한번도
전도를 못드른 사람도 있다.
이 전도자들은 극렬한 공산
주의 도성이라던 켄트에서 노
동자들을 신앙에 인도한 경험
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곳도
켄트와 같은 극렬파 아울러
신앙의 불타이 있음을 확신하
고 일에 착수하였다 한다。

전인구의 5%에 불과하다

中共治下宣敎者

香港에서 드러온 보도에 의하면 中國에는 五千七百여명의 개를릭 선교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겨우 五百九十四名 밖에 남지 아니하였다 한다. 그러나 그들중에서도 그 숫자는 계속 축소되고 있다 최근에도 二十명이 추방을 당하였다

亞細亞隣邦國親善圖謀

千葉현내에 있는 국제학생친선교환회에서는 지난 十五日부터 三日간 安房에서 친목회를 개최하였다 이 모임은 금년에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다
거행할때 간섭하지 말것.	종교적 의식을 공공연하게	의를 도모할것.	국립학교의 종교교육의 편	부모가 자녀 종교교육을	위한 수속을 할수있을것.	종교의식종교교육의 편	의를 도모할것.	종교적 의식을 공공연하게

(二面四段에서 계속)

(八)	(七)	(六)	(五)	(四)	(三)	(二)
거행할 때 간섭하지 말것.	종교적 의식을 공공연하게	의를 도모할것.	국립학교는 종교교육의 편	부모가 자녀 종교교육을	위한 수속을 할수있을것.	종교교육의
종교적인 쿠데타를 대주요	를 별장에 둘것	국가(國)의 重要한 事務적 行	으로 부속중인 학교에서 어	로 자립과 그외의 종교	지도자를 석방할것.	부속중인 高位성직자에게
방문 위문각을 받을것	종교 의식을 구류의 手段을	공인할것.	부모가 자녀 종교교육을	위한 수속을 할수있을것.	국립학교는 종교교육의 편	의를 도모할것.
종교적 의식을 공공연하게	거행할 때 간섭하지 말것.	종교적인 쿠데타를 대주요	를 별장에 둘것	국가(國)의 重要한 事務적 行	으로 부속중인 학교에서 어	로 자립과 그외의 종교
지도자를 석방할것.	부속중인 高位성직자에게	방문 위문각을 받을것	종교 의식을 구류의 手段을	공인할것.	부모가 자녀 종교교육을	위한 수속을 할수있을것.
국립학교는 종교교육의 편	으로 부속중인 학교에서 어	로 자립과 그외의 종교	지도자를 석방할것.	부속중인 高位성직자에게	방문 위문각을 받을것	종교 의식을 구류의 手段을
공인할것.	종교 의식을 구류의 手段을	공인할것.	부모가 자녀 종교교육을	위한 수속을 할수있을것.	국립학교는 종교교육의 편	의를 도모할것.
종교적 의식을 공공연하게	거행할 때 간섭하지 말것.	종교적인 쿠데타를 대주요	를 별장에 둘것	국가(國)의 重要한 事務적 行	으로 부속중인 학교에서 어	로 자립과 그외의 종교

제안으로 아세아각국에서 千葉
방면 각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자는
의도로 열립것이다。

더욱히 이 소복한 모임을
위하여 千葉사회교육과의 후원
이 컸다하며 참가한 한국, 중
국 일본학생들은 각나라의 민
요 무용등을 비롯하여 문화와
풍속의 일단도 소개하여 피차
의 이해(理解)를 깊이 하였
다 하며 오지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아세아 인방(隣邦)
국가에 살며 공존공영을 하
야 할 민족임을 이해하고 사
부상조의 정신으로 금후로도
피차 친교할것을 약속한다。

이 회합을 발족시킨 한국학
생측에는 이종성 이영우 두
기독학생이 있다。

西南地方水災義捐金品

大阪教會 二八二〇圓
大恒教會 二〇〇〇
名古屋教會 二五〇〇
川崎教會 一二三〇
多摩川伝道所 一二五〇
東京教會衣類 一四六點
但馬新聞에 發表함으로
領收證을 대신함이다。
在日大韓基督教會總會

大阪教會 二八二〇圓

大恒教會 二〇〇〇
名古屋教會 二五〇〇
川崎教會 一二三〇
多麗川云道所 一二五〇
東京教會衣類 一四六點
但福音新聞에發表함으로
領收證을 대신합니다。
在日大韓基督教會總會

共産主義는
勞働者農民의 벗인가?
(一面四段에서 계속)

있었고 모두 농민이었으며 그
자신의 소유농장에서 일을 하
였다 그들은 밭을 갈고 우유
를 짜며 수확을 하였고 화차와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또한 농
장에 관한 일이라면 다 하였
다 그들의 밭과 자식들은 농
부도 되었고 상인도 되었고
또는 하라는 예술가도 되었고 또는
모든 노동자와 같이 製絲工廠에
서 일하는 자들도 있었다. 우
리가 머슴반에도 머슴노동자하
가 다자본가였으며 식탄탄광
과 각종 공예 林業과 기업체
까지도 있었다는 것을 재하고는
아비닐과 동의한 것을 알았수
있을 것이다.

이들 모두 농부
들은 북한정부를 세웠고 그리
하여 공산주의정부를 조직하였
을때 그들은 곧 노동자 농민
들로 하여금 그들이 해방되어
졌다고 떠돌아 굉장한 선전을
하기 시작하였다. 토지는 모두
구분하여 농부에게 분배되었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었으며 공장
의 노동자들은 단시간 노동할
것을 약속하였고 월급도 좋으
며 휴가도있고 병이 나면 쉼
수도 있으며 사고가있을때 그
것에 대하여 보수도 해주며
노년보장금 및 진보적인민주주의
제국만이 소유할수있는 기타
여러가지것들 공산주의하 국가
에서는 가지지 못하는것들을 보
게되었다 처음에는 누구나 모
두 행복하였다 그리고 축하하
하였으나 얼마못되어 곧 노동
자농민들의 생활이 이전보다

사촌 조카딸 조카 등등이 하나 나는 노동자며 농민이며 노동 을 하며 또한 기술자이며 자본 가 상인임으로 어떠한 계급적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사회생활이 학교일이나 교회일이나 군 무복역에 대하여 그들은 모두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다. 五年前에 우리 어머니의 九 十탄생일을 마지하여 야외유연 을 차렸을때 百二十五명의 친 척이 모여들었다. 그중에는 농 부 상인을 포함할 설교자를 정부관리를 군인장교 및 하사 관들 법랑가를 및 기술자를 공정주인 공장노동자를 부랑자 러관서기 정치가들 시계수선공 등등이 있었다 모두 혈육제이 며 모두 다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다. 이것 이 보통이다 미국의 一億五千 萬 국민은 동일한 조건 밑에 있 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회에 있어 계급에 대하여 말한다는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어 디서나 참다운 민주주의가 생 장함에 따라 동일한 사회적관 계성을 가지게 될것이다. 참다운 의미에 있어 민주주의는 바로 이렇게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 이다.	다 나쁘다라는것이 형학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농민들은 정부 검사관이 실제로 그 토지가 생산할수있는 두배를 빼려도 농민들은 그대로 세금을 바치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농민들은 세금을 이전 자기의 지주에게 바치는데보다도 훨씬 많이 바치게 되었다. 공장 노동 자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이유 처럼 이유로 조국로시아를 뒤 하여 특별한 시간을 써가면서 라도 복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 었으며 또한 이들 노동자들의 생산물을싼 가격으로 로시아 에 보냈으며 그런 결과로 한 국은 로시아를 도왔을뿐이다. 북한정부는 장비가 잘 갖추어 진 크다란 군대를 만들고 있었 다 노동자농민들의 자식들도 그들의 이익까지도 배아서갔다 물론 그럴 공산주의자들은 노 동자농민들을 미국이나 혹은 이승만반동정부의 침략에서 보 호하는데 필요한 군력이라고 말하였을 것이다 또한 남한을 해방시키면 북한노동자농민들에 게 보다 더 많은 토지와 땅 은 식량이있을것이라고 말하였 을것이며 또한 남한에 있는 모든 공장들이 「인민정부」의 소유물이 될것이라고 말하였을 것이다. 우리들은 결국 무슨 일이 이러나가를 잘 알고있 다.
---	---

秋湖堂人

그러나 사람이 노상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을 믿고 맡길만한 착실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었다. 물론 기술자 혹은 설계업자도 부족하고 귀하다. 그러나 기술은 있고 지식은 있어도 양심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을 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다.

제 마음이 뻗듯이 못하고, 제 속이 겹고 누하여 자기 하나를 참으로 알지 못하고 인생을 논하고 천하의 일과 온 나라와 온 백성의 일을 말하고 장한채하는 당시의 소위 안다는 사람과 지에 있다는 사람이 없으며, 허람의 성현은 이렇게 뻗었다. 이제 우리도 사상문제나 문화운동(文化運動)이나 산업 경제문제나 통일문제도 교회문제도 다 잠깐 전어놓고 각각 자기 문제부터 해결 짓기를 힘쓰고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의 일을 천하하는 데서부터 재출발을 하여야 되지 아니할까.

지금 우리나라 각 부문(部門) 하나가 자기 사업에서 무던이 문제 되는 것은 「인물」이다.

고 하고 기술자가 설 취하고
방탕하여 큰 일을 저질르는
일은 진실로 우리나라 운명의
큰 암초(岩床)라고 할수 있다
일제시대 이래 사변이후에 참
혹하게 쓰러졌던 교회들 재건
(再建)하는 일이 급한데 이
일은 누가 맡으며 죽어가는
심령을 다시 살리는 부흥운동을
위탁하고 긴급한 기독교
문화사업(基督教文化事業)의
각 부문에 나설 인물은 어디
있고! 이렇게 인물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자격있고

크었다는 사람도 구해가지 못
은 일에 양심적으로 충성을
다하여 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
다 큰 문제다.

지금 나라일이나 육 교회
일로 일선에 나서서 활약하는
이들이 그만하면 대개 훌륭한
고 상당한 어른들이지마는 이
것문제에 있어서 또 양심문제
에 있어서 거이 급제되기가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고 할수 있나니 이것이 우리가
에게 있어서 가장 근심되는
문제다. 모도사생활이 깨끗지못
하고 자기직책에서 속이고
신의가 없고 그리고 충성치못한
것이 아담이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머
리 아프고 곤난한 문제는 반
드시 양심 문제요 마음있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문

戰死者의 아들이握手

제도 양심문제나 이 문제부터 바로 잡고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일이 헛일이 될것이라 나라나 교회나 잘 되기를 바랄수 없다.	이제 우리는 「더욱 알아라」 하는 쾰루테스의 말을 들지 말라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보지못하나니라」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온전 거듭나는 운동 그 리하여 양심의 사람이 되는 운동에 힘을 다하여야 되겠다
자 못하면 「오심보로」 백날을 웃는다」고 누구나 다 마참가지로 하나님앞에는 책망과심판을 받을사람들이니 이 양심운동은 사회적으로 남을 비평하고 공격하거나 가르치므로 될 것이 아니다. 하나님앞에서 자 각자가 거듭나며 마음이 깨끗한사람 양심의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이 무언중에도 누락이 없게 하여 피지못 피져야 할것이니 이것이 우리가 바라	는 양심운동이다.

이렇게 그날 일본사람에게	아주 미워하는 마음을	도움도 될수있는 일본사람을	국민에게 우리의 친구가 되고	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그들	자식 셋과 그밖에 가족五人	「나는 일본사람에게 내내와	력 가운데 다음과같은 일집이었다	특사령을 발표하였다 그 특사	게 대하여 「취리노」대통령은	소에 억류되어있든 일본전범에	필립핀 나라 불만무마 형부
하며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	(源田)씨가 얼마전에 기록한	어 입신하여 미국각처를 방문	없다.	이 남아있는 한, 평화는 구할	사이에서 계급과 계급, 개인과	개인이기에 이 미워하는 마음	까지하는것은 없다 나과와 나과	알영(暗營)을 얻지고 해독을	였다.	는 조치인것을 분명히 표시하	중오감(憎惡感)을 남기지
	후지루쿠로 호환	호환	일본	찾을수							

(主筆)

우려한 말이 세계적으로
흔한 문자라는 자라는
그만두더라고 어쨌든 우리
민족에게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었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큰
복이요 사실 자랑거리라고도
할 수 있다.

람이 파거의 훌륭한 문화를
살리고 일본문화보다 나은
새 문화를 건설하면 일본은
결코 한국을 게속하여 지배
할 수 없다고 한 일이 있거
니와 우리 선조가 남겨준
문화가 우리 민족적 생활과

뉘게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
 며 자기보다 문화가 우수하
 거나 적어도 같은 민족을 지
 배하지 못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
 을 침략 지배하고 있을 때
 에 일본의 어떤 식자는 이
 런 말을 하고 만일 한국사

있고 얼마나 고마운 혜택이 되는것만 생각할지라도 일본 문자보다 훨씬 나은 우리 한글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배우고 발전시킬 성의가 생긴 것이다.

그렇게 귀중한 한글이 일본시대에 처음에는 「인문」이

란 칭호로 팔시를 당하였고 그 다음에는 아조 말살을 당할번 한것은 지금 생각만 해도 몹서리가 나도록 분하고 기막히는 일이었다。

그런데 다시 도리켜 생각하면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사람 가운데 써오던 사상(事大思想)으로 중국문화를 우러러보고 중국문화밖에 모르는 자들이 한글을 언문이라고 현대하였고 그 여독으로 지금도 우리중에 한글을 언문이라고 하고 스스로를 언시여기며 앞만해도 한글을 낮게 여기는 자들이 있는 것은 진실로 기피망치한 일이다. 이번에 본국에서 일반공문을 한글친필자법을 쓰지 말고 재래식으로 쓰게 하라는

정부의 자원이 있어서 지금
큰일을 일으키고 잇는것을
전소에서 이미 소개한이어나
와그동안에이러한것을 다자기
네들의 무식을 폭로하는것이요
민족의 문화발전에 반역적
행동을 하는것이다.

에서 표적을 받은 우리 청년
들과 더구나 국민학교표적은
전열생까지 아니하는 무리한
말이다 소위 철자법이 어렵
다는 것은 하로저녁도 배우
지 않고 국민학교 아이들의
공부하는것도 보지않고 하는

「도대체 우리는 「신철자법」이라는 말부터 부인하는 것이니 그동안 한글문자의 문화가 오래 팔시를 당하여 혼란해지고 질서없고 함부르 써오든것을 정리하고 우리 어음에 맞고 학리에 맞도록 시키고 발전시킨것 뿐이다. 오늘날 같이 과학과 일반문화가 발달된 시대에 있어서 소위 재래식이라고 법없이 그냥 쓰자는 것은 말이 안 될뿐 아니라 이미 국민학교 말이다.

이제 이 기회에 특히 재외 교포들에게 크게 크게 경성 바깥것은 우리가 비록 본국을 떠나서 이땅에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조국문화와 조국정신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니 우리가 만일 조국을 잊지 아니하려면 한글을 잘 배우고 이겨서 조국을 알고 나아가서는 조국문화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될 것이다.

형편하기를 바란다.

하관」고 曰하얏다 韓景 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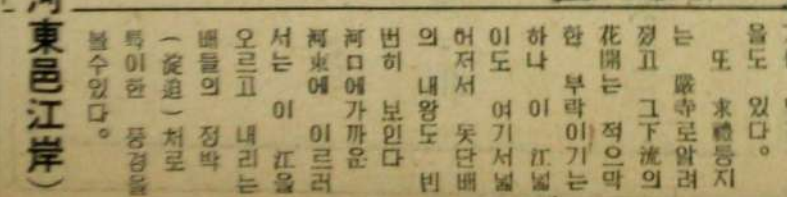
「하라고 대답하네다. 한정없

卷之四

（河東邑江岸）

蠟
津
江

（河東邑江岸）



(河東邑江岸)

京都市上京區大宮通蘆山寺上
西入社横町288 電話西陣(4)5852番